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

Institutionalized & Home-reared Adolescents'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Aggression*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유안진
강사 한유진
박사과정 최나야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Yoo, An Jin

Lecturer : Han, Eugene

Doctoral Course : Choi, Nay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social support and aggression of early adolescents. The subject were 220 adolescents aged 11 & 14 years, who were enrolled 11 child welfare facilities or 6 public schools(3 elementary & 3 middle schools) in Seoul. That is, 110 institutionalized(IAs) & 110 middle class home-reared adolescent (HA)s were examined. They subjec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on social support and aggres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1)IAs perceived less support from peers or adults and showed more aggressive behaviors than HAs. 2)Significant sex difference was observed in aggression. Girls showed lower level of aggression than boys. 3)Adolescents'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The more support from friends, classmates, and parents HAs perceive, the less aggression they reported. Though support from peers was correlated significantly only with anger expression, support from parents was

* 이 연구는 2000년도 학술진흥재단 두뇌한국21 핵심분야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ll the components of aggression. And the more support from friends and classmates IAs perceive, the less aggression they reported. These findings implicate that social support is a important factor in preventing aggressive behaviors of early adolescents.

주제어(Key Words):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공격성(aggression), 시설 청소년(institutionalized adolescent), 일반 청소년(home-reared adolescent)

I. 서론

최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공격적인 행동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격성은 아동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비행, 낮은 학업성취, 학교 중퇴, 그리고 심지어 범죄나 정신 병리와 같은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Farrington, 1995; Hudley & Graham, 1993). 그러므로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공격성 연구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 공격성의 정의 문제이다. 공격성은 연구자마다 강조하는 범위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가 다양하고 문제행동, 반사회적 행동, 비행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Coie & Dodge, 1998), 학자들간에 일관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공격성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에 의해 구분된다. 첫째, 공격성을 단지 관찰할 수 있는 특성 및 그 반응의 효과만을 가지고 정의하는 접근 방식, 둘째, 반응자의 특성 및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를 포함시켜 정의하는 접근 방식이다(Bandura, 1973). 이 연구에서는 더 포괄적인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여 공격성을 “타인에게 손상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정의한다.

공격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은 공격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문제이다. 기존의 공격성 측정 방법인 교사나 또래의 평가(Matthews & Angulo, 1980; Lardon & Jason, 1992) 및 가족 내 관찰 방법(Yudofsky, Silver, Jackson, Endicott, & Williams, 1986) 등은 자기 보고 방법에 비해 측정이

어렵고 비실용적인 단점이 있다. 교사나 연구자는 청소년의 집단 생활을 모두 관찰할 수 없고, 또 관찰한다고 해도 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은밀한 공격들을 모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공격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보고 방식이 효과적(Orpinas & Frankowski, 2001)이다. 또한 자신의 공격행동의 정도를 평가하게 하는 방식(Cotten, Resnick, Browne, Martin, McCarraher, & Woods, 1994)은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격성의 빈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빈도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격성은 욕구좌절 이론으로 설명된다. 욕구좌절 이론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욕구가 환경의 방해로 받을 때 공격성이 활성화된다는 것으로, 좌절이 공격성을 유발하고 공격성은 언제나 좌절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욕구좌절-공격 가설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Berkowitz(1974)가 제안한 변형된 욕구좌절-공격 가설에서도 욕구좌절은 처음에 분노를 유발하고 그 상황에서 공격에 적절한 단서들이 있거나 분노가 심하면 공격적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내·외적으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면서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의 부족(강복정·이정덕, 1999; 장인협, 1985)으로 인해 많은 심리적 좌절을 경험하여 억압된 분노와 공격성의 수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신인숙, 1989; 최일경, 1985)은 시설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공격적이고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낸다는 단순한 비교 연구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격성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살펴본 선행연구(Harris, 1992; Khatri, 1996)들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아 정체감의 위기와 좌절을 경험하는 시설 청소년의 공격성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으므로 공격성의 하위 영역별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개인적 목적을 성취하거나 상황적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를 주고받고(Antonucci, 1985), 애정, 존중, 승인, 소속감, 정체감 및 안전과 같은 욕구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되므로(Thoits, 1986),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기여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지원받고 있다고 지각해야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Turner, 1981), 실제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보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에게 물질적, 정서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적응을 돕고, 실패에 대한 좌절을 극복하게 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켜(Vaux, 1988),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ubow & Ullman, 1989).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에 청소년들의 주된 행동 반경이자 사회적 장인 가정, 또래 집단 및 학교에서 얻는 관심, 위로, 격려 등의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인 생활경험에서 자제심을 잃고 쉽게 보일 수 있는 공격 행동을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는 청소년기에도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된 원천(Richman, Rosenfeld, & Bowen, 1998)이다. 부모가 긍정적인 지지를 제공할 경우 아동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을 갖게 되고(Cauce, & Srebnik, 1989),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 비행을 감소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다(Barera, 1986)는 연구 결과는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설 청소년의 경우 보호사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는 친밀한 성인이다. 그러나 시설 청소년의 보호사에 대한 지지 지각을 하위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아동이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급격히 확대되는데, 특히 청소년기에 또래는 중요한 지지원이 된다. 선행연구들(Furman & Buhrmester, 1992; Hunter & Youniss, 1982)은 또래가 동료애, 친밀감, 애정 등에서 부모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지지를 제공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 초기와 후기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지각된 지지 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지각된 지지 점수는 점차 감소(Furman & Buhrmester, 199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변수(한미현, 1996)이므로, 청소년기 공격성과 또래의 지지가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청소년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이 되며,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가치, 태도, 기술 등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발달적 관점에 있어서 교사의 지지가 학업 성취(이병진, 1996) 이외에 어떠한 변수와 관련되는지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 지지의 지각은 높게 나타난 반면, 가족 지지는 아동기에는 증가하다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감소한다(윤혜정, 1993). 그러나 청소년기 교사의 지지에 대한 지각과 시설 청소년의 보호사에 대한 지각을 다룬 연구는 미흡하므로,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 지각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어떤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연구(윤정진·정옥분, 1997)와 사회적 지지의 지각에서 성차가 나타난다는 연구(Dubow & Ulman, 1989; 윤혜정, 1993)가 대립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하위 차원별 차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부모, 보육사, 또래 및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자아통제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공격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나,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직접 탐색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격적인 아동들은 비공격적인 아동들보다 그들의 가족이나 친한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별로 받지 못하며(Khatri, 1996),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Perdomo, 1987). 우리 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장미애, 1999)에서도 사회적 지지 지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공격성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공격적인 집단과 비공격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비교(Khatri, 1996)하거나, 사회적 지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장미애, 1999)에 관하여 살펴본 것을 뿐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의 각 하위 변수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각 원천과 하위영역별 청소년의 공격성이 어떠한 관계 양상을 보이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의 지원이 더 중요한지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시설 청소년의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설 청소년들이 가족 해체로 인하여 상실한 중요한 지지원인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원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시설 청소년의 공격성을 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상 사춘기적 특성인 좌절

과 갈등을 경험하는 초기 청소년¹⁾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증가하는 심각한 공격행동(Loeber, 1982)은 이후 청소년의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격성에서 주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초기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원이 파악된다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공격성 관련 부적응 문제를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공격성 문제에 조기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우선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을 연령, 성별,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시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시설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시설 관련 종사자, 아동복지 관련 정책 실무자, 자원 봉사자 또는 후원자 등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시설 청소년의 지지망을 강화하고 그들의 더 나은 성장과 문제 행동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청소년의 연령, 성별,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공격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의 연령, 성별,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사회적 지지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청소년기에 이르면 아동기에 비해 사회적 지지망이 변화하고 공격성의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

1) 이후부터는 초기 청소년을 청소년이라 칭함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단위 : 명)

연령	성별	시설 청소년	일반 청소년	계
11세	남	29	27	56
	여	21	28	49
	계	50	55	105
14세	남	27	28	55
	여	33	27	60
	계	60	55	115
계		110	110	220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초기 청소년기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사춘기적 특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만 11세(초등학교 5학년)와 사춘기 시기인 만 14세(중학교 2학년)를 선정하였다.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시설 청소년²⁾들과 비교 집단인 일반 청소년³⁾ 총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 소재 11개 아동양육시설에서 만11세와 만14세 총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관악구, 송파구, 동대문구에서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 1개교씩 총 6개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110명을 무작위 표집하여 비교 집단으로 삼았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각각 111명, 109명이었고, 시설 청소년들의 평균 시설 거주 기간은 11세 약 69개월, 14세 약 75개월로 나타났다.

2. 조사 도구의 구성

1) 사회적 지지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1985)가 개발한 'Social Support Scale(SSS)'를 번안·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SSS'는 사회적 지지의 출처에 따라 친구 지지(14개 문항), 급우⁴⁾ 지지(11개 문항), 부모 지지(6개 문항)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사와 보육사의 지지 또한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부모 지지의 문항을 활용하여 이를 구성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에게는 성적이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부모,

교사, 보육사에 대해 성적과 관련된 지지 내용을 1 문항씩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는 친구 지지(14개 문항), 급우 지지(11개 문항), 교사 지지(7개 문항), 부모/보육사 지지(7개 문항)에 대한 총 3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SSS'는 각 문항별로 두 명의 학생을 대비시켜 '나와 비슷한 편이다', '나와 정말 똑같다' 중에서 다시 한번 선택하게 하는 구조화된 선택(structural alternatives) 방식이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이러한 방식이 복잡하여 혼동을 일으킨 응답자가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동일한 4점 리커트 방식을 이용하되, '절대로 그렇지 않다'부터 '정말 그렇다'까지의 4가지 응답 범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긍정·부정 문항이 골고루 섞여 있도록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한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6이었다. 세부적으로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친구 지지: $\alpha = .82$, 급우 지지: $\alpha = .73$, 교사 지지: $\alpha = .63$, 보육사 또는 부모 지지: $\alpha = .71$ 로 나타났다.

2) 공격성

공격성 척도는 Orpinas와 Frankoski(2001)가 11개 문항으로 개발한 청소년용 자기 보고식 공격성 척도(The Aggression Scale)를 기초로 하고,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척도를 참조하여 연구자들이

- 2) '부모의 사망, 질병, 행방불명, 경제적 어려움 또는 부모로부터의 유기 등의 이유로, 부모의 양육을 받지 않고,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며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 3) 시설 청소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부모와 동거하며 계속적으로 양육과 보호를 받아온 청소년'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 4) Harter(1985)는 또래 집단을 일반적인 친구들(friends)과, 같은 반에 다니는 급우들(classmates)로 구분하여, 친구와 급우의 지지를 각각 측정하였다. 친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친구들과의 관계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모두 중요하다. 또한 시설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또래들이 급우와는 구별되므로 선행연구의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연구 목적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새로 구성된 문항 중에서 아동학 박사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의 공격성 척도는 Orpinas와 Frankoski (2001)의 공격성 척도에서 11문항, 연구자가 제작한 9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지난 일주일간 제시된 공격 행동을 몇 번했는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 이상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선행연구(Buss & Perry, 1992; Orpinas & Frankoski, 2001)들은 공격성의 하위 영역을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 적대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적대감을 구성하는 문항의 내용은 '낯선 사람이 친절하면 의심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내게 친절하게 대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등 명백히 공격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연구에서는 적대감을 공격성의 하위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체적 공격은 공격행동의 대상에 따라 대인 공격행동과 대물 공격행동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척도에 포함된 하위 영역은 언어적 공격(6개 문항), 대인 공격행동(7개 문항), 대물 공격행동(3개 문항), 분노 표출(4개 문항)이다.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로 높게 나타났다(하위 영역별로 언어적 공격: $\alpha = .78$, 대인 공격행동: $\alpha = .80$, 대물 공격행동: $\alpha = .73$, 분노 표출: $\alpha = .61$).

3. 자료 수집 절차 및 분석

2001년 3월 1일 D아동양육시설의 만11세와 만14세 청소년 13명, 3월 10일과 14일에 각각 동대문구의 D초등학교 5학년 한 학급과 S중학교 2학년 한 학급 총 5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통해 질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시 소재 11개 아동양육시설에서 만11세와 만14세 총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관악구, 송파구, 동대문구에서 선정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1개교씩 총 6개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11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에 의해 통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빈도분석, t-검증, 삼원변량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연령, 성별 및 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공격성

청소년의 연령, 성별 및 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공격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 청소년의 경우 공격성의 총점수는 평균 28.73이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언어적 공격은 평균 9.54점, 대인 공격행동은 평균 9.46점, 대물 공격행동은 평균 3.25점, 분노 표출은 평균 6.48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 청소년의 경우, 공격성의 총점수는 평균 18.65이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언어적 공격은 평균 6.58점, 대인 공격행동은 평균 5.39점, 대물 공격행동은 평균 2.17점, 분노 표출은 평균 4.50점으로 나타났다(<표 2>참조).

공격성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각 영역별 총 점수를 문항 수로 나눈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 청소년의 경우, 분노 표출 공격이 1.6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언어적 공격이 1.59점, 대인 공격행동이 1.35점이었으며, 대물 공격행동이 1.0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분노 표출 공격이 1.1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언어적 공격이 1.10점, 대인 공격행동이 0.77점으로 나타났고, 대물 공격행동이 0.7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일반 청소년과 시설 청소년 모두 분노 표출 공격성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 및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하였다(<표 3>참조). 그 결과 성별

<표 2> 집단별 공격성 점수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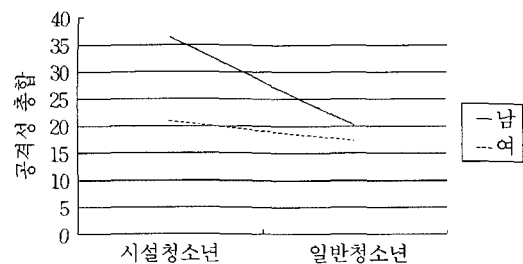
집단	연령	성별	N	공격성 총합 M(SD)	하위 영역별 M(SD)			
					언어적 공격	대인 공격행동	대물 공격행동	분노 표출
시설 청소년	11세	남	29	39.45(28.78)	12.24(9.31)	14.38(10.39)	5.41(5.36)	7.41(6.24)
		여	21	18.24(11.93)	6.14(4.52)	5.76(4.17)	1.62(2.91)	4.71(4.24)
		계	50	30.54(25.36)	9.68(8.20)	10.76(9.34)	3.82(4.84)	6.28(5.60)
	14세	남	27	33.00(20.99)	12.24(9.31)	10.78(8.15)	4.04(4.20)	6.63(4.68)
		여	33	22.48(18.84)	7.67(7.47)	6.42(6.52)	1.73(2.64)	6.67(5.25)
		계	60	27.22(20.36)	9.42(7.82)	8.38(7.56)	2.77(3.59)	6.65(4.96)
총 계			110	28.73(22.72)	9.54(7.96)	9.46(8.46)	3.25(4.22)	6.48(5.24)
일반 청소년	11세	남	27	19.31(15.42)	7.77(7.29)	6.46(6.29)	1.42(1.81)	3.65(3.98)
		여	28	16.11(12.78)	4.46(4.51)	5.61(5.63)	1.64(2.67)	4.39(3.80)
		계	55	17.65(14.07)	6.06(6.18)	6.02(5.92)	1.54(2.28)	4.04(3.87)
	14세	남	28	20.86(21.65)	8.14(6.45)	6.21(8.01)	2.89(4.57)	3.61(4.76)
		여	27	18.37(19.28)	6.00(6.08)	3.30(6.35)	2.70(4.75)	6.37(4.71)
		계	55	19.64(20.37)	7.09(6.30)	4.78(7.32)	2.80(4.62)	4.96(4.89)
총 계			110	18.65(17.48)	6.58(6.24)	5.39(6.66)	2.17(3.69)	4.50(4.42)

<표 3> 성별·연령·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공격성

변량원	제곱합(SS)	자유도	평균제곱합(MS)	F
성 별	4722.851	1	4722.851	12.224**
학 년	8.759	1	8.759	.023
시설일반	5008.870	1	5008.870	12.965***
성별*학년	439.185	1	439.185	1.137
성별*시설일반	2287.614	1	2287.614	5.921*
학년*시설일반	122.046	1	122.046	.316
성별*학년*시설일반	336.153	1	336.153	.870

*** p<.001, ** p<.01, * p<.05

에 따른 주효과(F(1,211)=12.224, p<.01)와 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주효과(F(1,211)=12.965,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관계없이 일반 청소년보다 시설 청소년의 공격성이, 그리고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의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 및 시설 거주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F(1,211)=5.921, p<.05)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의 공격성은 시설과 일반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남자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시설 청



<그림 1> 성별과 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공격성

〈표 4〉 성별에 따른 하위영역별 공격성

성 별	남(n=110)		여(n=110)		t
	M	SD	M	SD	
언어적 공격	9.97	7.96	6.14	5.98	4.027***
대인 공격행동	9.55	8.96	5.31	5.91	4.124***
대물 공격행동	3.49	4.44	1.93	3.32	2.951**
분노 표출	5.36	5.24	5.63	4.63	-4.03
공격성 총합	28.37	23.68	19.01	16.37	3.401**

*** p<.001, ** p<.01

〈표 5〉 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하위영역별 공격성

시설 거주 여부	시설 청소년(n=110)		일반 청소년(n=110)		t
	M	SD	M	SD	
언어적 공격	9.54	7.96	6.58	6.24	3.060**
대인 공격행동	9.46	8.46	5.39	6.66	3.952***
대물 공격행동	3.25	4.22	2.17	3.69	1.999*
분노 표출	6.48	5.24	4.50	4.42	3.018**
공격성 총합	28.73	22.72	18.65	17.48	3.676***

*** p<.001, ** p<.01, * p<.05

소년의 공격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공격성의 하위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격성의 총합과 하위영역인 언어적 공격, 대인 공격행동, 대물 공격행동에서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노 표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에서 보듯이, 공격성의 총합과 모든 하위영역, 즉 언어적 공격, 대인 공격행동, 대물 공격행동, 분노 표출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시설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연령, 성별 및 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지각의 차이

청소년의 연령, 성별, 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사회적 지

지 지각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총점수는 평균 100.66이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친구 지지는 평균 38.12점, 급우 지지는 평균 30.49점, 교사 지지는 평균 17.41점, 보육사 지지는 평균 17.16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총점수는 평균 114.44점이었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친구 지지는 평균 45.66점, 급우 지지 평균 34.23점, 교사 지지는 평균 18.00점, 부모 지지는 평균 22.52점으로 나타났다(〈표 6〉참조).

사회적 지지 지각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각 영역별 총 점수를 문항 수로 나눈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 청소년의 경우, 친구 지지가 2.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급우 지지가 2.77점, 교사 지지가 2.49점, 보육사 지지가 2.45점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도 친구 지지가 3.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부모 지지가 3.22점, 급우 지지가 3.11점이었으며, 교사 지

〈표 6〉 집단별 사회적 지지 지각 점수의 분포

집단	연령	성별	N	사회적 지지의 총합 M(SD)	하위 영역별 M(SD)			
					친구 지지	급우 지지	교사 지지	보육사/부모 지지
시설 청소년	11세	남	29	95.57(15.08)	37.25(7.31)	28.86(6.86)	16.79(3.19)	16.14(2.73)
		여	21	102.19(10.03)	40.71(6.02)	31.76(4.10)	17.48(4.31)	17.13(3.64)
		계	50	98.41(13.45)	38.73(6.94)	30.10(5.97)	17.08(3.68)	16.54(3.12)
	14세	남	27	104.26(9.17)	38.37(3.71)	31.19(4.12)	17.93(1.86)	18.12(2.39)
		여	33	101.06(9.50)	37.00(4.19)	30.48(3.47)	17.48(2.50)	17.13(2.40)
		계	60	102.50(9.41)	37.62(4.01)	30.80(3.76)	17.68(2.23)	17.57(2.43)
총 계		110	100.66(11.53)	38.12(5.52)	30.49(4.86)	17.41(2.97)	17.16(2.76)	
일반 청소년	11세	남	27	114.00(19.12)	44.15(8.30)	33.07(6.56)	18.19(4.62)	23.90(4.23)
		여	28	115.86(20.72)	44.07(9.07)	33.11(7.29)	19.50(3.95)	24.41(3.55)
		계	55	114.95(19.79)	44.11(8.62)	33.09(6.88)	18.85(4.31)	24.16(3.86)
	14세	남	28	108.96(15.27)	45.75(6.62)	34.86(4.96)	17.64(4.61)	20.00(5.11)
		여	27	119.48(19.74)	48.96(6.50)	36.04(5.42)	16.39(5.56)	21.09(4.93)
		계	55	113.92(18.14)	47.26(6.70)	35.42(5.17)	17.08(5.05)	20.66(4.96)
총 계		110	114.44(18.91)	45.66(7.86)	34.23(6.18)	18.00(4.74)	22.52(4.72)	

〈표 7〉 성별·연령·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지각

변량원	제곱합(SS)	자유도	평균제곱합(MS)	F
성별	833.816	1	833.816	3.488
연령	126.237	1	126.237	.528
시설일반	10193.290	1	10193.290	42.637***
성별*연령	4.491	1	4.491	.019
성별*시설일반	267.924	1	267.924	1.121
연령*시설일반	269.024	1	269.024	1.125
성별*연령*시설일반	1141.184	1	1141.184	4.773

*** p<.001

지가 2.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시설 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 모두 또래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은 부모의 지지를 친구 지지 다음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시설 청소년은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는 보육사의 지지를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연령, 성별 및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시

설 거주 여부에 따른 주효과(F(1,211) = 42.637, p<.001)가 유의하였다. 연령에 관계없이 일반 청소년이 시설청소년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총합과 몇 가지 하위영역에서 시설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표 8〉 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하위영역별 사회적 지지 지각

시설 거주 여부	시설 청소년(n=110)		일반 청소년(n=110)		t
	M	SD	M	SD	
친구 지지	38.12	5.52	45.66	7.86	-8.178***
급우 지지	30.49	4.86	34.23	6.18	-4.956***
교사 지지	17.41	2.97	18.00	4.74	-1.091
보육사/부모 지지	17.16	2.76	22.52	4.72	-9.278***
사회적 지지의 총합	100.66	11.53	114.44	18.91	-6.489***

*** p<.001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사/부모 지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친구와 급우로부터의 지지 또한 시설 청소년이 더 낮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교사 지지는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

1)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 간의 관계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9〉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공격성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로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구 지지, 급우 지지 및 부모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공격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또래 지지(친구 지지와 급우 지지)와 부모 지지 모두 공격성과의 관

련성을 보이고 있으나, 또래 지지의 경우 공격성의 하위 영역 중 분노 표출에서만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반면, 부모 지지는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의 공격성에 있어 부모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2) 시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 간의 관계

시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10〉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유의하게 공격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로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구 지지 및 급우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공격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물 공격행동과 분노 표출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우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물 공

〈표 9〉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 합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				
		친구 지지	급우 지지	교사 지지	부모 지지	
공격성 합	-.197*	-.216*	-.200*	.024	-.364**	
공격성 하위 영역	언어적 공격	-.201*	-.156	-.149	-.043	-.288**
	대인 공격행동	-.208*	-.190	-.176	.115	-.249*
	대물 공격행동	-.067	-.136	-.095	.048	-.303**
	분노표출	-.294**	-.236*	-.289**	.053	-.414**

** p < .01, * p < .05

〈표 10〉 시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 합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			
			친구 지지	급우 지지	교사 지지	보육사 지지
공격성 합		-.193*	-.193*	-.204*	-.109	-.085
공격성 하위 영역	언어적 공격	-.139	-.151	-.157	-.070	-.022
	대인 공격행동	-.204*	-.127	-.185	-.111	-.118
	대물 공격행동	-.227*	-.244*	-.212*	-.136	-.062
	분노표출	-.108	-.202*	-.173	-.075	-.093

** p < .01, * p < .05

격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과는 달리 부모의 양육 역할을 대행하는 보육사의 지지와 공격성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사의 지지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는 또래의 지지를 더 중요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또래의 지지가 공격성의 감소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시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구분하여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을 연령, 성별,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공격성이 더 높다. 구체적으로 시설 청소년은 언어적 공격, 대인 공격행동, 대물 공격행동 및 분노 표출을 더 자주 나타낸다. 이는 시설 청소년이 공격적이고 거친 행동을 보이며 행동 문제를 많이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결과(신인숙, 1989; 최일경, 1985)와 일치한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으나 시설 청소년은 가족의 해체로 인한 불안과 상실감을 경험하고, 집단 생활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와 인적·물

적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좌절과 분노를 느껴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공격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의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공격성의 하위영역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언어적 공격, 대인 공격행동, 대물 공격행동 등 행동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격성을 남자 청소년이 더 많이 보였다. 이는 공격성에 성차가 존재하고 남자 청소년의 공격성이 더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Harris, 1992; Khatri, 1996)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청소년의 공격성은 성별과 시설 거주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공격성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더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의 공격성은 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보다 시설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아에 비해 남아는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느끼기 때문에 낮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생활이 남아의 자아 주도감이나 대인친밀감을 낮춘다(유안진·민하영, 2001)는 점에서 시설 거주 남자 청소년의 높은 공격성 수준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 거주 남자 청소년이 보이는 높은 공격성의 원인을 좀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추후연구에서 심층 면접 등을 통한 보다 심도있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 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낮게 지각한다. 구체적으로 시설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같은 반 급우나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더 낮게 지각하며, 일반 청소년의 부모 지지 지각에 비해 보육사로부터의 지지도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가 되면 또래가 정서적 지지의 주된 근원이 되며(Hunter & Youniss, 1982), 또래들이 동료애, 친밀감, 애정 등에서 부모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지지를 제공(Furman & Buhrmester, 1992; Hunter & Youniss, 1982)함을 고려할 때, 시설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에 대한 낮은 지지는 이들의 또래관계의 질과 대인관계 적응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시설 청소년은 부모라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학교 급우나 같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또래의 지지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설 청소년의 또래 관계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또래 관계 강화를 위한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

또한 시설 청소년에게 있어 보육사가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청소년의 부모 지지 지각과 비교하여 보육사로부터의 지지 지각이 유의하게 낮을 뿐 아니라,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사와 시설 청소년간에 상호작용과 애착형성이 부족하여, 보육사가 양육·지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보육사의 높은 이직률 및 보육사 대 시설 청소년의 높은 비율(김응석 외, 1995)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 가정과는 달리 한 명의 보육사가 많은 수의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현실에서 보육사가 제공하는 개별적인 관심, 격려, 도움 등은 한계를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보육사가 시설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개별적 관심과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무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사가 시설 청소년들의 심리적 갈등과 좌절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동발달과 상담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사들이 일정 기간마다 재교육과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프로

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의 지지는 시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모두 낮게 지각하며,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이처럼 낮게 나타난 것은 아동기에는 사회적 활동 범위가 좁고, 인지적 성장도 미숙하기 때문에 교사가 절대적인 존재로 지각되는데 비해, 청소년기에 이르면 신체적,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활동 범위의 확대로 인해 독립의 욕구가 증가하고, 교사의 절대적 영향에서 벗어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한편으로는 교사 대 아동의 높은 비율, 교사의 과다한 행정 잔무 등 현재의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하여 교사가 개별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잔무로부터 해방되고, 상담 교사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교사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지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시설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중요한 지지원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낮았다. 이는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지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Thoits, 1986)와 일맥상통한다.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좌절 상황에서도 공격성을 표출하지 않도록 자기 통제력을 높히는데 도움을 주어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는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일반 청소년은 부모 지지와 또래 지지가 모두 공격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특히, 부모의 지지는 공격성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에서 느끼는 사랑과 수용, 안정 등의 가족 지지가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대한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방지하고(Barrera, 1986), 청소년들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Bowen &

Chapman, 1996)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로부터 신체적, 심리적으로 독립해 감에 따라 지지 및 보호 제공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점차 감소한다.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사랑, 이해, 친밀감, 관심, 충고, 정보, 물질적 도움 등 넓은 범주의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자녀가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도록 하고(윤혜정, 1993), 자신감, 통제감, 긍정적 정서 등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Cauce & Srebnik, 1989),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시설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로부터의 지지만이 공격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대물 공격행동과 분노 표출 공격성을 더 적게 나타내었다. 이는 청소년 초기에 또래로부터 거부된 사람일수록 이후에 공격적 행동과 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고(Asher & Dodge, 1986),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행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Sim & Vuchinich, 1996)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좌절을 경험할 때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또래로부터의 위안은 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또래의 정보제공적인 지지는 내적·외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공격성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또래관계의 질을 강화하고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대인관계 프로그램은 시설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 청소년의 공격성은 보육사 및 교사의 지지 지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를 상실한 청소년의 적응은 이웃과 교사와 같은 성인들의 지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증가될 수 있다(Resnick, Harris, & Blum, 1993)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사나 교사와 같은 대안적인 지지 원천은 부모의 지지가 빈약한 시설 청소년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중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윤혜정,

1993)나 초등학교 아동의 성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강성희·이재연, 1991)와는 달리, 보육사와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공격성이 유의한 상관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청소년이나 시설 청소년 모두 교사나 보육사의 지지를 낮게 지각한다는 <연구문제 2>의 결과와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교사와 보육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매우 적게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지적인 교사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Bowen & Chapman, 1996)는 교사나 보육사의 지지가 청소년들 특히 시설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 교사와 보육사가 시설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설 청소년들을 위해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일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서울시 소재 11개 아동양육시설 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시설 청소년 110명만이 표집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고 시설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만을 입증하였으나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시설 청소년의 공격성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공격성을 하위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시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같은 연령대의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여 파악함으로써, 성인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함을 다시금

확인하고 부모의 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지원의 개발이 필요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초기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관련된 요인임을 밝히고, 특히 시설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시설 관련 종사자, 아동복지 관련 정책 실무자, 자원 봉사자 또는 후원자 등이 유용하게 참고하고 공격성 예방 및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복정, 이정덕(1999). 시설청소년의 가족상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3), 15-26.
- 강성희, 이재연(1991).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의 스트레스 완충 효과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13(2), 175-188.
- 김응석, 김현옥, 이상헌, 오정애, 이정호, 박광준(1995).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인숙(1989). 시설아동의 집단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육아시설 중학생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안진, 민하영(2001). 시설 보호 아동의 자아정체감 및 내적인 통제 소재와 보육사가 평가한 행동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97-109.
- 윤정진, 정옥분(1997).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8(2), 311-331.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병진(1996). 사회지지망이 소년소녀가장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미애(1999).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따른 스트레스 및 공격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인협(1985). 시설아동의 건전 육성. 아동복지, 창간호.
- 최일경(1985).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chenbach, T. M., Bird, H. R., Casino, G., Phases, V., Gould, M. S., & Rubio-Stipec, M. (1990). Epidemiological comparisons of Puerto Rican and US mainland children: Parent, teacher, and self-repor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84-93.
- Antonucci, T. C. (1985).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ocial behavior. In R. H. Binstock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2nd ed.).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pp. 94-128.
- Asher, S. R. & Dodge, K. A. (1986). Identifying children who are rejected by their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44-449.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rera, M.(1986). Distinction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413-445.
- Berkowitz, L. (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 with reinforcement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 165-176.
- Bowen, G. L. & Chapman, M. V. (1996). Poverty, neighborhood danger, social support, and the individual adaptation among at-risk youth in urban areas. *Journal of Family Issues*, 17(5), 641-666.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auce, A. M. & Srebnik, D. S. (1989). Peer networks and social support: A focus for preventive

- efforts with youth. In L. Bond, Campas, & C. Swift(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Prevention in the schools*.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 99-125.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 N.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pp.779-862). NY: John Wiley & Sons.
- Cotten, N. U., Resnick, J., Browne, D. C., Martin, S. L., McCarraher, D. R., & Woods, J. (1994). Aggression and fighting behavior among African-American adolescents: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 618-622.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Farrington, D. P. (1995). The development of offending and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Key findings from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1-36.
- Furman, W. & Burhma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 in perception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Harris, N. B. (1992). Sex, race, and the experience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8*, 201-217.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Denver: University of Denver.
- Hudley, C. & Graham, S. (1993). An attributional intervention to reduce peer-directed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boys. *Child Development, 64*, 124-138.
- Hunter, F. T. & Youniss, J. (1982). Change in functions of theres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6), 806-811.
- Khatri, P. (1996). Aggression, peer victimization, and social relationships among rural indian yout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Lardon, C. & Jason, L. A. (1992). Validating a brief pupil evaluation inventor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367-376.
- Loeber, R. (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 Matthews, K. A. & Angulo, J. (1980). Measurement of the Type A behavior pattern in children: Assessment of children's competitiveness, impatience-anger, an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1*, 466-475.
- Orpinas, P. & Frankowski, R.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0-67.
- Perdomo, E. L. (1987). Aggress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urban male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City University of New York PhD dissertation.
- Resnick, M. D., Harris, L. J., & Blum, R. W. (1993). The impact of caring and connectedness on adolescent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Paediatric Child Health, 29A*(Suppl. 1), S3-S9.
- Richman, J. M., Rosenfeld, L. B., & Bowen, G. L. (1998). Social support for adolescents at risk of school failure. *Social Work, 43*(4), 309-323.
- Sim, H. & Vuchinich, S. (1996). The declining effect of family stressors on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17*, 408-427.
- Thoits, P. A. (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 Psychology*, 54, 416-423.
- Turner, R. J. (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57-367.
- Vaux, A. (1988).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Yudofsky, S. C., Silver, J. M., Jackson, W., Endicott, J., & Williams, D. (1986). The overt Aggression Scale for the objective rating of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35-39.